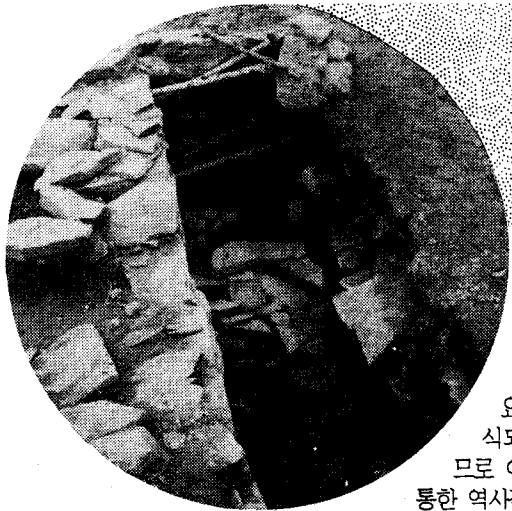




민통선 이북지역서 고대 유물 발굴

르 포 본교 '고고 미술사 연구소' 발굴 현장을 찾아

으로나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 식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발굴을 통한 역사적 성격 규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 물증은 이제껏 문헌자료에 나타난 오두산성의 형상에 따라 짐작만 해왔을 뿐 아직 구체적인 고고학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지역의 발굴과정에서 약40여기의 고분이 발견되었다. 이중 대형석실묘는 호석이 둘러져 있는 것으로 3기가 발견되었

제각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이 지역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격전장이었으며 한강이북에서 처음으로 출자형 금관이 출토됨에 따라 6세기 이후 신라가 이 지역을 점령했다는 사실을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 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종류도 '일단투각점경호' '은제 귀걸이' 등 대략 6세기경으로 추정할 수 있는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들이어서 이를 더욱 확실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편 이번 발굴된 석실묘는 정상부분에 상당히 큰 구멍이 파여져 있어 도굴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며 길이 1백20~1백40cm 내경이 3백80cm 정도의 대형석실묘로 알려졌다. 이 석실묘는 남북 방향으로 놓여져 있으며 시신의 머리쪽인 북쪽에서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기도 했다. 이번 발굴을 맡고있는 본교 발굴단의 박사(대학원 박사과정·사학)

씨는 "이번 발굴은 신라가 진흥왕 이후 한강을 점령했다는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할 수 있어 규모나, 의의면에서 상당히 큰 발굴이라 말했다. 발굴을 시작할 당시 7명으로 구성되었던 본교의 발굴단은 현재 심복순씨에 2명이 발굴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발굴은 마무리단계에 와있다.

(엄홍준 기자)



신라 출자형 금관 발견, 고고학적 성과커 오두산성이 옛 관미성임을 반증하는 고분출토

한편 오두산성에 관한 그간의 연구자료를 보면 이 성곽이 삼국사기의 관미산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으며 이를 밝혀내는 것은 삼국시대의 역사를 올바르게 밝혀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관

군 헬기장 건설등으로 많은 손실이 있어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없는 관계로 보다 세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 지역 부근에서 발견된 고분들은 오두산성이 삼국사기에 전해져 내려오는 관

미성일 것이라는 보다 확실한 증거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역의 발굴과정에서 약40여기의 고분이 발견되었다. 이중 대형석실묘는 호석이 둘러져 있는 것으로 3기가 발견되었

제의 출현과 사라짐에 놓여있다. 정육은 영일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일을 남겨놓으라고 친구들에게 부탁하면서 자신의 근무처로 돌아간다.

그의 부재가 소설 속에서 던지는 의미는, 영일의 죽음을 물고고 여러가지 제도적 원인들(사술자) '나'에게 그려진, 회사속 사람들의 미신적 행위로 미루어 짐작되는 하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육은 배제되어 있다

가치표현의 유보를 통해 무기력한 현실 그려 기존 노동소설의 목적성 배제한 색다른 시도

이 두 입장에 대해 다소간 관망하는 자세를 보인다. 문제는 영일의 죽음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지 않고, 소설의 처음에 등장했다가 영일의 장례 문제를 해결하기전에 서울을 떠난 정육이라는 인물의 소설적 처리에 있다. 정육은 의리파로 분류되는 동향으로, 구미의 D산업에서 공원으로 근무하다가 영일의 죽음 소식을 듣고 잠시 상경한다. 이 작품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정

육은 영일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일을 남겨놓으라고 친구들에게 부탁하면서 자신의 근무처로 돌아간다.

창작과비평

신인 유재현의 소설 '구르는 돌' (300매) 이 실린 '창작과 비평' 봄호

의식이 얼마나 '권력의지'와는 거리가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둘째, 영일의 죽음은 감추어진 구조적 폭력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설정되었다가 보다는, 현대사회의 제도적 폭력 아래에서 '의미'라는 불가능한가를 보여주는 것

는 곳에서 두서너개의 의미가 존재하는 것이다. 즉, 인간적인 따뜻함이 끊임없이 물질적인 가치로 축적되는 곳에서의 삶이란, 박성훈의 돈키호테 같은 노동운동이 무의미해리만큼 보잘것 없는 것이다. 셋째, 본단의 고통이 투입되어 있는 소설적 구조는 그 구성상의 어설됨에도 불구하고 내면적 깊이를 확보한다는 점이다. 이는 '아버지 부재의식'을 동반하는

것으로, 영일이 이북출신인 김아저씨의 해고에 자극되어 노조를 설립할 생각을 한다는 것도, 부재하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의 심도를 표출한 것이고, 이는 우리 삶의 본질적인 가치중의 하나가 왜곡된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분단극복)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네째, 이 작품은 기존의 노동소설이 하나의 집중된 의미를 얻고자 시도했던 노력을 상당히 포기한 듯한 느낌을 갖게한다는 점이다. 노동하는 계급의 현실인식의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의 소설들이 많은 시간을 갖게했다면, 이 작품은 현실 속에 무기력하게 주저앉고 마는, 그래서 '바지주머니 속'에서만 '주먹에 힘을 주

고'구르는 돌을 견어차야만 하는 인물을 제시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노동소설이 지향했던 본질적인 의미찾기에 대해 전반적인 반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 원 군 (대학원 석사4기·국문학)

감춰진 진실의 "흔적" 찾기

중편소설 '구르는 돌'이 문학계에 던지는 의미

소설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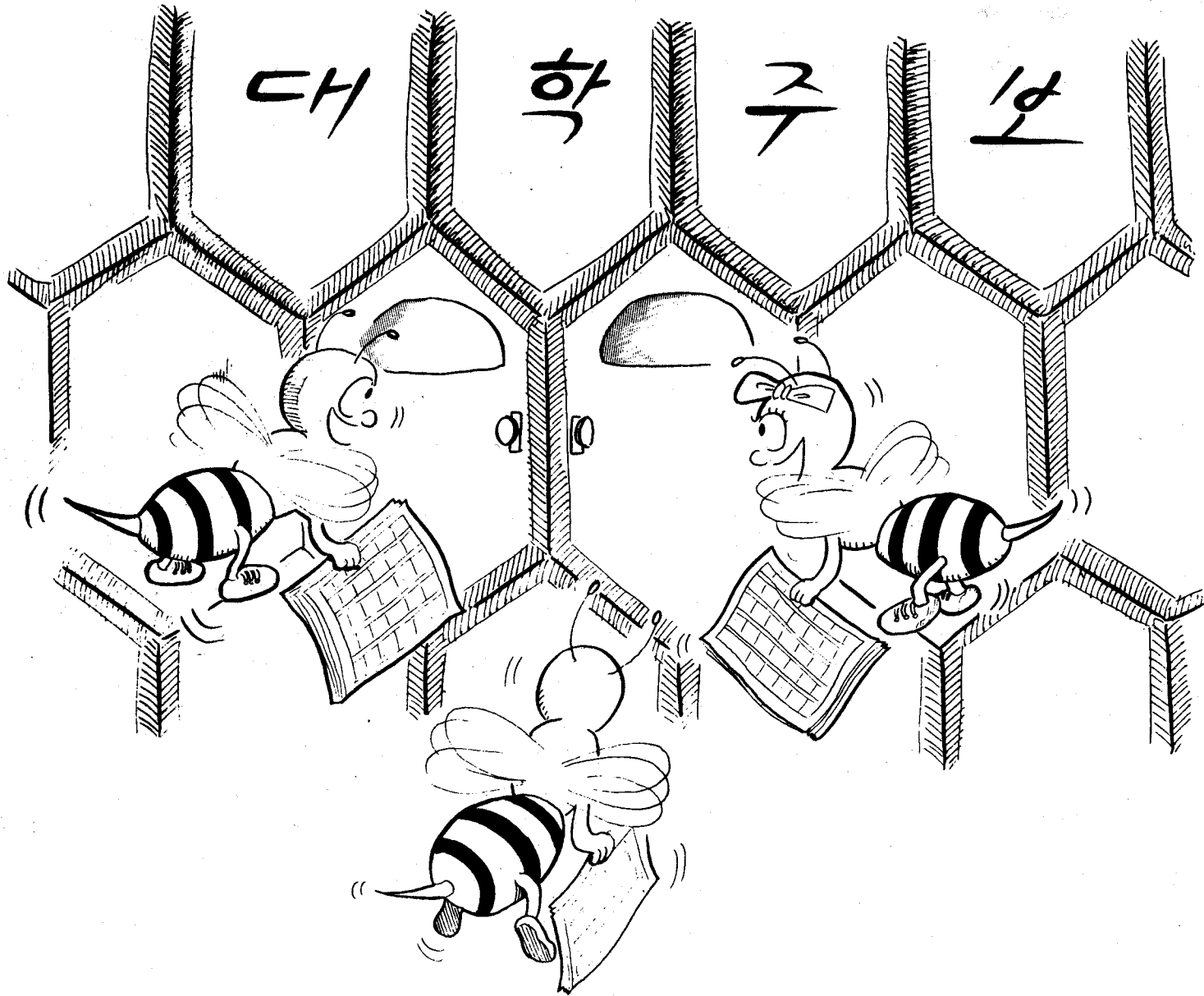
문학행위가 늘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로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정의된다면,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 것이며, 찾아진 의미는 실제적인 삶에 어떤 외포를 선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유재현의 중편 '구르는 돌'(창작과 비평, 1992, 봄)을 읽음에 더욱 분명하게 감지된다.

데리다의 '차연'이라는 개념이 '확정된 가치의 드러내기를 거부한 채, 끊임없는 유보를 통해 무의미화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우리 앞에 남는 것은 기묘한 현란한 자리바꿈에 의한 흔적 뿐일 것이다. 우리는 그 흔적을 따라가면서 하나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헛된 수고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 철학의 '고전주의자'들에 의해 지적 허무주의의 무차별적인 노출로 비판받기도 하는 이런 논의가 때때로 상충하는 상당한 설득력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

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 삶의 구성구석에, 이러한 논리적 그물망이 짜여져 있는 정육군이 관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르는 돌'의 문제점은, 본질적인 의미찾기에 작가가 의도적으로 골몰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오늘날의 삶에 편재하는 보편적 편견, 혹은 권력의 기도가 삼투된 냉소적 무관심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데 있다.

S7계 공고를 졸업하고, 공장에서 취직생활을 하던 한 인물(영일)의 죽음을 그린 이 작품은 사건의 극적 전개나 작가의 집중된 계몽의도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특성을 지닌다. 영일은 등장인물들(정육, 두서, 성대, 윤재, 나)에 의해 간접화되어 그려진다. 영일은 80년 5월에는 종로에서 데모대열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취직 후에는 조조만들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 위장취업자로 활동하다 해고된 박성훈과 조조견련에 관한 문제를 상의한다. 그러던 어느날, 사들간의 철야



“여러분이 모아온 꿀로 가득 채우고자 합니다”

어떻게 글은 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본장 대학주보사로 찾아오십시오. 당신을 만겨맞는 대학주보기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멋진글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글씨가 예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학주보는 여러분의 삶이 진솔하게 담긴 하나하나의 생각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 학 주 보 사